

## 한국어 번역 개념사의 명칭론적 접근: 조선왕조실록 탐구 (2)\*

이 영 훈  
(고려대)

### 1. 연구배경

최근 들어 서구에서 번역 개념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구중심의 번역 개념이 국제화된 현 세계의 복잡한 번역실천 양상과 근대 이후 탈식민, 탈근대의 번역에 대한 관점을 포괄하는데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서구 또는 구비적 전통에 바탕을 둔 번역 개념을 통합한 기존 번역 개념의 확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마리아 티모츠크(Maria Tymoczko)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의 번역 전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최근 이와 관련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sup>1)</sup>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티모츠크의 영향 하에 그에 대한 반향으로 마사

1) 아시아의 번역 전통 관련 대표적 국제학술대회는 2004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Asian Translation Tradition Conference로 제5회 학술대회가 2012년 11월에 아

청(Martha Cheung)과 주디 와카바야시(Judy Wakabayashi) 두 학자가 각기 중국과 일본의 번역 개념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sup>2)</sup>를 실천에 옮긴 바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한국어 번역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는 한국에서의 번역 개념을 역사적으로 규명해보려는 계획 하에 수행된 일련의 연구들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필자는 이미 작년 초 발표된 한 논문<sup>3)</sup>에서 오늘날 한국어에서 각종 번역 실천의 총칭어로 간주되는 ‘번역’의 한자표기 ‘翻譯’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그 용례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조선왕조실록을 대상으로 분석·기술하였다. 본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한국어에서 각종 번역 행위의 총칭어(generic term)로 자리잡은 한글 어휘 ‘번역’의 한자 표현인 ‘翻譯/翻譯<sup>4)</sup>’이란 용어는 한글 창제 및 반포 이전

람에미레이트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또한 관련 논문 모음집으로는 Chan (ed.) (2004), Hung & Wakabayashi (eds.) (2005), Luo & He (eds.) (2009), Levy (ed.) (2011) 등이 있다.

2) Cheung (2005, 2011), Wakabayashi (2005, 2009)

3) 「한국에서의 번역 개념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翻譯」.

4) ‘翻譯’은 ‘翻譯’의 이체자(異體字)로 우리의 2011년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로 두 한자 어휘를 모두 사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진행하던 중 ‘翻譯’의 또다른 이체자로 ‘翻譯/繙譯/繙譯’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상기 용례가 총 61건(‘翻譯’ 1건, ‘繙譯’ 6건, ‘繙譯’ 54건) 추가로 발견되었다. 세 어휘 모두 조선조 말기 주로 고종과 순종 연간 문서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면 아래와 같다.

<철종 1권, 즉위년(1849 기유 / 청 도광(道光) 29년) 6월 9일(을해) 2번째기사 / 대왕 대비가 사·원임 대신을 소견하여 임금의 학업 증진에 대해 의논하다>

又曰: “今下諺教, 使承旨翻譯一通進覽, 又頒布於朝紙好矣。”

또 아뢰기를, “지금 내리신 언문 교지를 승지더러 번역케 하여 1통은 어람(御覽)토록 올리게 하고 조보(朝報)에도 반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緒) 20년) 7월 8일(임오) 4번째기사 / 군국기무처에서 관청이나 개인의 문서에 써여 있는 구라과 문자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一,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者, 俱以國文繙譯施行事。

인 15세기 초부터(태종 이후 빈번히<sup>5)</sup>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글 창제 이전의 조선의 번역 개념은 불경의 한어(漢語) 번역 및 한어(漢語) 텍스트의 이두문(吏讀文) 번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글 창제 및 반포 이후 조선에서 ‘翻譯/翻譯’이란 어휘는 기존의 불경의 한어(漢語) 번역 및 한어(漢語) 텍스트의 이두문(吏讀文) 번역 외에도 한문(漢文) 및 언문(諺文)을 중심 축으로 한 각종 언어간 교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문 텍스트의 언문 텍스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諺解’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번역 행위로 자리잡았으며, ‘翻譯/翻譯’과 ‘諺解’를 비교할 때, ‘翻譯’은 문서의 공식화를 지향하고, ‘諺解’는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BA번역 뿐만 아니라 AB번역까지도 포괄하는 조선시대의 번역 개념은 BA번역만을 진정한 번역으로 인정하는 서구의 번역 개념<sup>6)</sup>과 대조를 이룬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자 어휘 ‘翻譯/翻譯’의 다양한 의미를 각종 용례를 통해 분석하여 명칭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어의론(semasiology)’적 연구를 진행한 위의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본 연구는 번역 개념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 이후 개화기까지의 번역 관련 용어들을 추적하는 ‘명칭론(onomasiology)’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우리는 주로 조선왕조실록

1. 일체 국내의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과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11월 26일(양력) 3번째기사 / 사와다 우시마로, 미우라 미고로, 마에마 교사쿠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書記官成夏國·金命圭, 翻譯官朴容九, 俱勤乃職, 竝特敘勳五等, 各賜八卦章。”

서기관(書記官) 성하국(成夏國)·김명규(金命圭), 번역관 박용구(朴容九)는 다 자기 직무에 근실하였으므로 모두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 5) 11-12세기 고려시대 불교 문헌들(大覺國師文集, 華嚴論節要, 禪門拈頌說話 등)에 ‘翻譯’이라는 한자 어휘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그 간행연대가 조선시대라 실재 ‘翻譯’의 출전 여부는 불확실하다.
- 6) 슬로베니아의 번역학자 니케 포코른(Nike Pokorn)의 2005년 저술 *Challenging the Traditional Axioms*은 비모국어로의 번역(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을 백안시하고, 그 가치가 의심스럽고, 실패할 위험이 큰 활동으로 간주하는 서구의 기존의 시각에 반기를 들고 비모국어로의 번역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개념적·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서의 서론에서 저자는 BA번역만을 진정한 의미의 번역으로 인정하는 서구의 일반화된 기존 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의 현대 한국어 번역문을 대상으로 ‘번역’, ‘언해’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의 한자 어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여, 조선시대 번역 개념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조선왕조실록에 비친 ‘번역’

실록에는 ‘번역’을 가리키는 한자 어휘로 기존의 ‘翻譯’ 및 그 이체자들<sup>7)</sup>, 그리고 ‘諺解’ 이외에도 여러 표현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譯’자와 그 복합어가 그 한 계열이고, ‘翻譯’자와 그 복합어들이 또다른 계열에 해당한다. 한편, ‘翻譯’자와 ‘譯’자의 합성어인 한자어휘 ‘翻譯’은 태종실록(1401년)에 처음 등장하고 세조 연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太宗 1卷 1年(1401) 閏3月 22日 (辛亥) 2번째기사 / 대사헌 유관 등이 승려의 수를 줄이고 오교·양종을 없앨 것을 건의하다>

그러므로 구마라습(鳩麻羅什) 이 요진(姚秦) 에서 스승노릇을 하여 그 글을 번역하여서 그 간사한 말을 펴뜨리어, 무릇 상사(喪事)가 있으면 모두 불공을 드리고 중들을 먹이게 하여,  
故鳩麻羅什得師於姚秦, 翻譯其書, 駟其邪說, 凡有喪事, 皆令供佛飯僧,

<世祖 31卷 9年(1463) 11月 9日 (癸亥) 1번째기사 / 이부와 최효원이 팔괘도법을 지으니 그대로 번역하게 하다>

비현합(丕顯閣)에 나아가니,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진무 부장(鎭撫部將)·선전관(宣傳官) 등

7) 실록에 등장하는 ‘翻譯’과 그 이체자(‘翻譯/翻譯/繙譯/繙譯’)들의 출현 빈도수는 총 148회이며, ‘諺解’는 96회 등장한다.

8) 본문의 예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된 구체적 용례들로 독자들의 실록 원문 이해와 해독을 위해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한글 번역을 병기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에 표시된 볼드체, 이태릭체와 밑줄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이 좌·우(左右)로 나누어 병서(兵書)를 강(講)하였다. 이부(李溥)와 최호원(崔灝元)이 《팔괘도법(八卦圖法)》을 지으니, 그대로 번역(翻譯)하게 하였다.

癸亥/御丕顯閣。永順君溥、龜城君浚、銀山副正徹、河城尉鄭顯祖、兵曹參判金國光及入直諸將、承旨等入侍。鎮撫、部將、宣傳官等分左右講兵書，溥及崔灝元作《八卦圖法》，仍令翻譯。

다른 한편, ‘翻譯’의 구성요소인 ‘譯’자는 번역의 의미로 1394년 태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반면, ‘翻’자는 1473년 성종실록에서야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1월 19일(을묘) 3번째 기사 / 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몽고어를 공부하는 자로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검하여 위글[偉兀] 문자를 쓰는 자를 제1과로 하고, 위글 문자만을 쓸 줄 알고 몽고어에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며, 출신의 품급은 전과 같이 한다.

習蒙語者，能譯文字，能寫字樣，兼寫偉兀字者爲第一科；只能書寫偉兀文字，并通蒙語者爲第二科，出身品級同前。

<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7월 18일(정미) 2번째 기사 / 대사헌 서거정 등이 사찰에서 일어나는 여승과 부녀자에 의한 풍기 문란을 논하다>

부녀자 가운데 보잘것없이 추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심복(心腹)들과 결탁하고, 혹은 점등(點燈)한다고 일컫고, 혹은 천도(薦導)한다고 일컬으며, 혹은 변경(翻經)한다고 일컬으며, 사찰(寺刹)을 두루 돌아다니며 열흘씩이나 유숙(留宿)하고 방탕하면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니, 음행을 저질러 추악하고 더러운 소문이 자자하여 높이 귀에 들립니다.

婦女之無狀醜行者，結爲腹心，或稱點燈，或稱薦導，或稱翻經，遊遍寺刹，旬日留宿，蕩而忘返，縱淫醜穢之聲，騰聞滔滔。

한글창제 이후 조선시대 대표적인 번역행위로 자리잡은 ‘諺解’는 1459년(세

9) 한어(漢語) 불경을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

조 5년) 간행된 『월인석보』에 실린 「훈민정음언해」가 그 최초의 작품이지만 ‘諺解’라는 한자 어휘가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514년(중종 9년)이다.

<中宗 20卷 9年(1514) 4月 14日 (丁未) 2번째기사 / 의사로 하여금 약을 만들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以《諺解醫書》一張, 下政院曰:  
《언해의서(諺解醫書)》 한 장을 정원(政院)에 내렸다.

사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면, ‘譯’이라는 한자 어휘는 ‘번역’의 의미로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이미 등장하며, ‘翻譯’이라는 한자 어휘도 같은 의미로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이미 나타난다. 반면, ‘翻譯’과 그 이체자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의 텍스트들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조선 이전의 문헌에서 ‘諺解’라는 한자 어휘의 출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번역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한자 어휘들의 출현은 삼국사기(1145), 삼국유사(1285), 고려사(1454),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들을 토대로 추정할 때 ‘譯, 翻譯, 翻譯, 諺解’의 순서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제 한국의 번역 개념사를 선도한 대표적 두 명칭인 ‘譯’과 ‘翻譯’ 그리고 그 복합어들을 조선왕조실록 속의 구체적인 용례들과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 2.1. 譯 계열

### 2.1.1. 譯

조선왕조실록에서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譯’의 용례는 총 68회 발견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譯’은 태조 연간에 처음 등장하며, 조선조 마지막 왕인 순조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짐없이 관찰된다. 조선왕조의 시대별 용례를 살펴보면, ‘譯’은 먼저 14세기말 태조 때는 몽고어 문자의 한문 번역을 가리킨다.

<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11월 19일(을묘) 3번째 기사 / 사역원 제조 설장수가 사역원의 시험 자격과 선발 액수 등에 대해

올린 글>

몽고어를 공부하는 자로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겹하여 위 글[偉兀] 문자를 쓰는 자를 제1과로 하고, 위글 문자만을 쓸 줄 알고 몽고어에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며, 출신의 품급은 전과 같이 한다.

習蒙語者，能譯文字，能寫字樣，兼寫偉兀字者爲第一科；只能書寫偉兀文字，并通蒙語者爲第二科，出身品級同前。

15세기는 한글창제(1443년)가 기점이 되어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한글창제 이전(태종, 세종)에 ‘譯’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또는 여진어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과 한문을 왜어 텍스트로 옮기는 것을 지칭하였다.

<태종 28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2월 6일(을해) 1번째 기사 / 이은·우희열·한옹 등을 농상 장려를 위해 각도에 보낸다. 원나라의 책 《농상집요》를 반행하다>

한상덕이 또 아뢰었다. “원조(元朝)의 《농상집요(農桑輯要)》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나, 다만 그 글이 어려워서 사람마다 쉽게 깨달아서 알지 못하니, 원컨대 본국(本國)의 이어(俚語)로써 번역하여 향곡(鄉曲)의 소민(小民)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尙德又啓曰：“元朝《農桑輯要》有益於民，但其文〔古〕雅，人人未易通曉。願譯以本國俚語，令鄉曲小民無不知之。”上從之，命前大提學李行與檢詳官郭存中成書板行。

<세종 65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15일(기미) 2번째 기사 / 야인 범찰이 도망한 한인을 돌려달라는 글을 보내다>

건주 좌위 지휘 동범찰(童凡察)이 관하(管下)를 보내어 여진(女眞) 문자(文字)로 글을 써서 바치매, 이를 번역하여 읽으니, 말하되,

○建州左衛指揮童凡察，遣管下，用女眞文字獻書。譯之，其辭曰：

<세종 85권,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5월 11일(무오) 3번째 기사 / 왜인의 서계의 진위를 상고하도록 하는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위의 사건을 일본 글로 번역하여 판(板)에 써서 왜선이 머무르는 곳의 각 포(浦)에 퍼 걸어서 널리 보일 것이며, 또 왜객인(倭客人)이 내왕하는 각 포(浦) 가운데, 대선(大船)·중맹선(中猛船)·창검선(槍劍船)·추왜선(追倭船)

에 모두 창과 칼을 설치하여 무위(武威)를 보이게 하소서.” 하니,  
右事件, 譯以倭畫, 書于板, 乃於倭船所泊各浦, 張掛廣示, 又於倭客人來  
往各浦中大船中孟船槍劍船追倭船, 皆設槍劍, 以示威武。”

한글창제 이후(세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에는 한어(漢語) 텍스트를 언  
문으로, 야인어(野人語) 및 범어(梵語) 텍스트, 언문(諺文)을 한문으로, 한문을  
여진어(女眞語) 텍스트로, 고전한문을 한어(漢語)로 번역하는 것을 말하였다.

<세종 103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2월 16일(병신) 1번째  
기사 / 집현전 교리 최항·부교리 박팽년 등에게 언문으로 《운회》를 번  
역하게 하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  
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垔),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  
유(李瑀)·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丙申/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  
垔、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  
君瑀、安平大君瑢監掌其事。

<세종 112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5월 22일(기축) 3번  
째기사 / 평안도 감사가 야인에게서 얻은 백피서를 번역하여 아뢰다>

백호(百戶) 장을경(張乙敬)이 무창(茂昌)에 입구(入寇)한 야인의 백피서  
(栢皮書)를 얻었는데, 사람을 시켜 번역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百戶張乙敬追茂昌入寇野人至羅里乃洞, 得野人栢皮書, 使人譯之, 其文  
曰:

<성종 84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9월 5일(기사) 7번째기  
사 / 영산 부원군 김수온이 사직의 전을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갑초(劫初)에서 시작하여 대승(大乘)의 전한 것을 고루 상고하였고, 한대  
(韓代)에 서역에서 온 패엽(貝葉)의 경문을 처음 번역하였습니다.

肇起劫初, 歷考大乘之傳, 創譯韓代西來貝葉之文。



<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2일(병술) 3번째기사 / 왕대비가 성종의 효성에 대해 한글로 교지를 내리다>

왕대비가 행장 수찬(行狀修撰)에서 언서(諺書)를 내렸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王大妃下諺書于行狀修撰, 以文譯之:

<세조 15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3월 10일(임진) 2번째기사 / 함길도 도체찰사 신숙주가 올랑합·알타리의 추장을 타이른 일을 보고하다>

신이 곧 글을 지어 여진 글자[女眞字]로 번역하여 가상합(加霜哈)에게 부쳐서 야당기(也堂其) 등을 타일렸습니다.

臣乃作書, 譯以女眞字, 付加霜哈, 諭也堂其等。

<성종 188권, 17년(1486 병오 / 명 성화(成化) 22년) 2월 5일(신사) 1번째기사 / 장유화 등을 제조로 삼는 것을 대신들과 의논했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을 따르다>

또 《사서(四書)》를 한어(漢語)로 번역하여 통사(通事)와 강이관(講肄官)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서, 만약 통(通)하지 못하면 북경(北京)에 가지 못하게 하여 권장하고 징계하도록 하소서.”

且《四書》譯以漢語, 使通事、講肄官習之, 如其不通, 使不得赴京, 以爲勸懲。

16세기(중종, 선조)에 ‘譯’자는 한문을 언문으로 옮기는 일만을 뜻하였다.

<중종 14권, 6년(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9월 2일(기유) 1번째기사 / 헌부가 채수를 탄핵하니 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채수(蔡壽)가 《설공찬전(薛公贊傳)》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복(禍福)이 윤회(輪廻)한다는 논설로, 매우 요망(妖妄)한 것인데 중외(中外)가 현혹되어 믿고서, 문자(文字)로 옮기거나 언어(諺語)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

憲府啓: “蔡壽作《薛公贊傳》, 其事皆輪回、禍福之說, 甚爲妖妄。中外惑信, 或翻以文字<sup>10)</sup>,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10) 본 예문에서 ‘翻以文字’는 한문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며, ‘譯以諺語’, 즉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과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翻’자가 한문으로의 번역을 말한다면,

<선조 41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8월 2일(계미) 4번째 기사 / 황정욱을 삼성 추국하여 적진에서 있었던 일을 공초받다>

곧 장문(長文)의 글을 만들어 한국함(韓克誠)의 군관(軍官) 이장배(李長培)에게 정서(正書)시키고, 또 언서(諺書)로 번역하여 통사(通事) 함정호(咸廷虎)로 하여금 적중에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乃作長書，令韓克誠、軍官李長培正書，又譯以諺書，令通事咸廷虎，宣言於賊中。

17세기(선조, 인조, 숙종)에 ‘譯’자는 한문의 언문 번역, 한어 텍스트의 야인어(野人語) 텍스트로의 전환, 왜서(倭書)와 청어(淸語) 텍스트의 한문 번역을 가리켰다.

<선조 199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5월 21일(무자) 2번째 기사 /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의 반포를 요청하고 순천 부사 이수를 탄핵하는 사헌부의 상소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는 바로 인륜을 밝히는 책이니, 방언(方言)으로 번역하고 그 형상을 그려서 여염의 부인이나 아동들로 하여금 한번 보아 모두 흠복 감탄하여 양심(良心)이 저절로 생기게 하면 풍화(風化)에 도움이 어찌 적겠습니까.

《三綱》《二倫行實》，乃是明倫之書，譯以方言<sup>11)</sup>，圖其形像，使閭巷婦人小子，纔經一覽，莫不欽服感嘆，良心自生，其有補於風化，豈淺淺哉？兵難以來，閭閻之間，罕有此書。

<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12월 4일(경인) 3번째 기사 / 상이 승정전에 나아가 용골대 등을 접견하고 그들의 국서를 받다>

들으니, 귀국에 금(金)과 원(元)의 글로 번역된 《시경(詩經)》·《서경(書經)》 등과 《사서(四書)》가 있다고 하니, 삼가 구하여 한 번 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 차[茶]를 내리니, 용호(龍胡)가 말하기를, “지난번 귀국이 사신을 보내온 뒤에 즉시 회사(回謝)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몽고를 치러 갔었기 때문에 이제야 왔습니다.”하고, 이어 역관에 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한(汗)이 금과 원의 글로 번역된 책을 얻고자

‘譯’자는 언문으로의 번역을 가리키는 셈이다. 물론, ‘翻譯’자와 ‘譯’자 간의 의미상의 대립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1) 이 때 ‘方言’은 언문을 뜻한다.

한다.”하였다.

聞貴國有金、元所譯《書》、《詩》等經及四書，敬求一覽，惟冀慨然。[...]。上賜茶。龍胡曰：“頃自貴國使臣來後，當即回謝，而其時往擊蒙古，今始來矣。”仍謂譯官曰：“國汗願得金、元所譯書矣。”

<숙종 9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7월 10일(정유) 1번째 기사 / 동래 부사 조세환이 왜인으로부터 정금이 패해 퇴보한 일에 관한 글을 받아 올린다>

왜서(倭書)를 번역하여 알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因譯倭書以聞.” 其書曰: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3일(갑오) 2번째 기사 / 청나라 광조서의 편지에 관해 의논하다>

대저 천영선(千永善)이 얻은 문서는 바로 청국의 당보(塘報)로서, 우리나라 조지(朝紙)와 같은 것이었다. 청국 글자로 썼는데, 청나라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그 글을 번역하게 하였더니, 바로 우리 나라 남(柵)과 허견(許堅)의 옥정(獄情)을 저들에게 보고한 것들이었다.

蓋永善所得文書，卽清國塘報，如我東朝紙之類。而書以清字，令清譯其文，乃我國以柵、堅獄情報彼者也。

18세기(정조)에 ‘譯’자는 만주 및 몽고 텍스트의 한문 번역을 지칭하였다.

<정조 51권, 23년(1799 기미 / 청 가경(嘉慶) 4년) 5월 27일(갑신) 1번째 기사 / 중국에서 시호를 반포하고 내린 조서 내용>

사시(四詩)의 악보를 정하니 풍(風), 아(雅), 송(頌)을 악장에 맞게 하였고, 세 나라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니 요(遼), 금(金), 원(元)의 국어(國語)를 번역하였다.

四詩定譜，叶風雅頌於樂章，三史料訛，譯遼、金、元之國語。

끝으로 19세기(고종, 순종)에 ‘譯’자는 일본어 텍스트와 언문의 한문 번역, 독일어/프랑스어 텍스트의 한역(漢譯), 번역 일반, 한문 텍스트의 일역(日譯) 등을 말하였다<sup>12)</sup>.

12) 고종 및 순종 실록에 영어 텍스트의 국·한문 번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譯’을 단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 / 청 광서(光緒) 2년) 윤5월 18일(기묘) 1번째기사 / 수신사 김기수가 부산포에 돌아와 일본 외무경의 회답 서계 등을 보내다>

일본 외무경(外務卿)의 회답 서계(書契) 및 공문 1통과 한문(漢文)으로 번역한 문서 1통을 해조(該曹)의 당상에게 올려 보냈고, 역관(譯官) 현석운(玄昔運)은 임소에 뒤쳐져서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日本外務卿答書契及公文一度, 譯漢文一度, 上送于該曹堂上, 譯官玄昔運, 落留任所.” 啓.

<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緒) 20년) 11월 21일(계사) 2번째기사 /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동한다.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고종 36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광무(光武) 1년) 9월 25일(양력) 3번째기사 / 권재형이 상소문을 올려 황제의 존호에 대해 아뢰다>

신은 예전에 정위량(丁韪良)이 번역한 《공법회통(公法會通)》을 읽었습니다.

臣曾讀丁韪良所譯《公法會通》<sup>13)</sup>.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7월 8일(양력) 4번째기사 / 지식영이 국문을 정리하고 편리한 방도를 정하여 가르칠 것을 상소하다>

지금 세계의 각국(各國)은 모두 자기의 문자(文字)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통용하는데 대체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각종 문헌들을 모두 자기의 문자로 번역 출판하여 본국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주(五洲)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글을 알고 시국(時局)을 통달하며 날이 갈수록 문명으로 전진하고 있습니

독으로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대신 ‘譯成’이라는 복합어휘의 사용 예가 발견된다.

- 13) ‘公法會通’은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 중국 이름 丁韪良 惠三)이 스위스의 법학자 블룬츨리(Johann K. Bluntschli)의 *Das moderne Völkerrecht* (1879)을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물론, 이 번역은 샤를르 라르디(Charles Lardy)의 프랑스어 번역 *Le Droit international codifié*을 증역한 결과이다.

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통상(通商) 후 몇 십 년이 지났으나 어물어물 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득하기도 어려운 한문에 인이 박혀 쉽게 이해되는 국문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폐하는 교육을 담당한 신하에게 명하여 우선 서로 마음을 정하여 국문을 정리하는 동시에 편리한 방도를 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고 경전(經傳) 안에서 몇 편의 성인들의 가르침을 번역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먼저 마음과 뜻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 최근 실무상 새로운 학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번역하여 민간에 널리 반포한다면 몇 년이 안되어 사람마다 모두 충성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게 되어 점차 부강하게 될 것이며 글을 배우게 하는 단서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現今天下各國，悉以自國之文，行乎自國，蓋自主之義，未始不存乎其間，而他國之各種文學，莫不以自國之文，對譯翻譯，以教其民。故五洲橫目之民，無不識字，通達時局，蒸蒸日上進於文明之域。獨我國，通商幾十年，委靡不進者。但狃於難解之漢文，不尙易曉之國文故也。伏願陛下，命教育之臣，爲先參互，整釐國文，且設方便，使民了解，譯經傳中幾篇聖訓，授之愚民，先定心志。次譯近日務實新學中最要者，廣布世間，則不幾年，人人皆知忠愛及經濟之所當爲，而富強之漸，可執契而俟也。”

<순부 8권, 10년(1917 정사 / 일 대정(大正) 6년) 12월 27일(양력) 1번째 기사 / 《문헌비고》의 일본말 번역판의 출판 보조비를 조선연구회에 하사하다>

조선연구회(朝鮮研究會)에 일금 150원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일본말 번역 《문헌비고(文獻備考)》 출판 보조비이다.

二十七日。特賜朝鮮研究會金一百五十圓。以和譯《文獻備考》出版補助也。

결국, ‘譯’이라는 한자 어휘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조선시대에도 각종 언어간 다양한 교섭을 나타내는 기능을 함으로써 한국어 내 번역의 개념망에서 한자 어휘 ‘翻譯’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2.1.2. ‘譯’이 이끄는 복합어휘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譯’을 앞에 두고 구성된 복합어휘에는 ‘譯解’, ‘譯

說’, ‘譯審’, ‘譯書’, ‘譯成’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된 그 각각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譯解’라는 어휘는 ‘번역하고 풀이하다’라는 의미로 세종, 현종, 고종 실록에 총 4회 등장한다.

<현개 26권, 14년(1673 계축 / 청 강희(康熙) 12년) 2월 5일(을사) 1번째 기사 / 팔도 및 개성부 강화부에 유지를 내리다>

그러므로 우리 조종(祖宗)께서도 백성을 후하게 해 줄 방도에 깊이 관심을 기울여 맨 먼저 전제(田制)를 바르게 하시고, 혹시라도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를까 염려하시어 농서(農書)를 번역하고 풀이해서 깨우치고 가르치셨는데,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肆惟我祖宗深軫厚民之術，首之以田制之正。且慮小民或昧樹藝之宜，譯解農書以訓諭之，猶恐其未也。

‘譯說’이란 어휘는 선조실록에 ‘번역하여 말하다’는 뜻으로 1회 나타난다.

<선조 70권, 28년(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12월 13일(신해) 3번째 기사 / 접반사 김수가 양사(兩使)의 조질례와 문답한 내용을 보고하다>

현소가 고명(誥命)을 가지고 번역하여 말하니, 행장·정성 등이 모두 끊어앉아서 듣고 한참 있다가 파하였다.

玄蘇將誥命譯說，行長、正成等，皆跪而聽之，良久乃罷。

‘譯審’은 ‘번역하여 살펴보다’는 의미로 역시 선조실록에서 1회 발견된다.

<선조 173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4월 29일(기유) 2번째 기사 / 비변사가 김광이 굴지정에게 보낸 편지를 속히 전달할 것을 건의하다>

김광(金光)이 광녕(廣寧)에 이르러, 역관 이유(李楡)가 돌아오는 편에 왜어(倭語)로 한 통의 서찰을 써서 보내며 굴지정(橋智正)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풀질을 해 봉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통사(倭通事)를 시켜 번역하게 하여 살펴 보니 다른 말은 없었고,

金光到廣寧，因譯官李楡之還，以倭字修送一札，俾傳於橋智正，而不爲糊封，令倭通事譯審，則別無他語。

현재 통용되는 ‘번역된 책’이란 뜻의 ‘譯書’도 인조실록에 1회 등장한다.

<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12월 4일(경인) 3번째기사 / 상이 승정전에 나아가 용골대 등을 접견하고 그들의 국서를 받다>  
 이어 역관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한(汗)이 금과 원의 글로 번역된 책을 얻고자 한다.”하였다.  
 仍謂譯官曰: “國汗願得金、元所譯書矣。”

‘번역 글쓰기’를 뜻하는 ‘譯成’이란 어휘는 고종실록에서 총 9회 발견된다. 특히 ‘譯成’은 흔히 고종실록 내 서구와의 수호 통상조약 체결 문건들에서 서구 문헌의 번역(14)을 지칭한다. 현재로선, ‘譯成’이란 어휘가 서구 문헌의 한국어 번역을 뜻하는 최초의 용어라 할 수 있다(15).

<고종 20권,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緒) 9년) 10월 27일(갑술) 7번째기사 / 조선영국수호조약을 체결하다>  
 2. 영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각서는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영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二, 凡由英國官員, 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 與英文配達。

### 2.1.3. ‘譯’이 따르는 복합어휘

한편,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譯’을 뒤에 두고 구성된 복합어휘에는 ‘反

14) 고종실록에는 서구 문헌의 언문 번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繙譯’도 사용된다.

<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緒) 20년) 7월 8일(임오) 4번째기사 / 군국기무처에서 관청이나 개인의 문서에 써어 있는 구라파 문자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등의 의안을 올리다>  
 1.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一,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者, 俱以國文繙譯施行事。

15) 한자 어휘 ‘譯’이 ‘서구문헌의 번역’의 뜻으로 쓰인 예는 고종실록 36권 (1897)에 처음 등장하므로, 조선시대의 번역 개념이 ‘서구문헌의 번역’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표현된 것은 ‘譯成’(1883), ‘繙譯’(1894), ‘譯’(1897)의 순서이다.

譯’, ‘象譯’, ‘重譯’, ‘諺譯’, ‘傳譯’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낸 그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번역하고 해석하기’, ‘되풀이하여 번역하기’, ‘번역하기’ 등으로 옮길 수 있는 ‘反譯’이란 어휘는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실록에서 총 13건 발견된다.

<世宗 63卷, 16年(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2月 25日(癸酉) 4번째기사 / 한학 권장에 대한 조건들에 대하여 예조에서 건의하다>

1. 본원의 전함(前銜)과 권지(權知)들이 매일 청우(晴雨)를 가리지 않고 모아서 업을 수습함이 해를 쌓은 바 있어, 이제는 이미 경서(經書)를 통하고 제법 재예를 이룬 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를 포폄(褒貶)하는 법이 없어서 다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있사오니, 매일 그 경서를 강의하고 한어를 역해(譯解)한 것을 명백하게 문부에 이록해 두었다가, 세초(歲抄)를 당하여 그 분수(分數)를 고찰하여, 그 우두머리 된 자 2명을 동서반을 막론하고 별례로 승진 전보시켜 그의 진익(進益)을 권장하면, 효력을 볼 것입니다.

院前銜權知, 每日不分晴雨, (褒)[聚]會習業, 積有年紀, 今已通經書稍成才者頗多, 然無褒貶之典, 更不盡力. 每日講其經書, 反譯漢語, 明白置簿, 當其歲抄, 考其分數, 爲頭二人, 勿論東西班, 別例陞轉, 勸進見效.

<端宗 7卷, 1年(1453 癸酉 / 명 경태(景泰) 4年) 9月 21日(甲戌) 1번째기사 / 중국에서 동해 가에서 고기잡이하다 중국에 붙잡힌 다섯 사람을 성조사 이인손에게 붙여 보내오다>

당상이 이르기를, ‘장차 주달하여 곧 붙여서 돌려보내겠으나, 다만 이 문인(文引)이 알지 못할 것이 많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 말語로 되풀이기 때문에 이와 같습니다.’고 하였다.

堂上云: “將奏達, 就付送回. 但此文引, 多有不可曉處.” 答曰: “以俚語反譯, 故如此.”

<성종 22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9월 7일(경자) 2번째기사 / 절검을 힘쓰고 몸소 행할 것을 중외에 반포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한글[諺字]로 번역하고 인출(印出)을 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부인(婦人)과 소자(小子)들까지도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命以諺字, 反譯印出, 頒中外, 使婦人、小子, 無不周知.



현대 국어사전에 ‘통역’의 의미로 등재된 ‘象譯’이란 어휘는 세조실록에 1회 등장한다.

<세조 3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3월 28일(정유) 3번째기사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  
 인하여 중국의 어음(語音)을 배움으로써 상역(象譯)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여섯입니다.  
 因以學中國之語音, 以正象譯之訛, 六也。

오늘날 ‘한 번 번역된 말이나 글을 다시 다른 말이나 글로 번역함’을 뜻하는 ‘重譯’이란 어휘는 세조실록에서 ‘여러 번 번역하기’의 의미로 두차례 발견된다.

<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3월 10일(정해) 2번째기사 / 호조 참관 김순 등을 명에 보내 칙서에 대해 회주하고 표리를 내려 준 것에 사례하다>  
 애오라지 중역(重譯)하여 진헌(進獻)하는 정성을 보이니, 영유(靈囿)에 기르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聊效重譯<sup>16)</sup>之進, 冀許靈囿之容。

‘諺解’에서 파생된 ‘諺譯’이란 어휘는 ‘한글로 번역하기’ 또는 ‘언문’이란 뜻으로 선조와 영조 실록에 4번 등장한다.

<선수 18권, 17년(1584 갑신 / 명 만력(萬曆) 12년) 1월 1일(기묘) 1번째기사 / 이조 판서 이이의 줄기>  
 아래로 비복(婢僕)에 이르기까지 참알(參謁)하고 출입하는 데 모두 예식이 있었는데 별도로 훈사(訓辭)를 만들어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쳤으며 규

16)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는 해당 한자 어휘에 대해 “거듭 말을 번역하여 진공(進貢)하는 것. 옛날 주(周)나라 때 월상(越裳)이라는 나라에서 백치(白雉)가 나오자 서장(書狀)을 몇 번 번역하여 이를 바치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라는 주석으로 전거를 설명하고 있다.

문(閨門)이 마치 관부와 같았다.

下逮婢僕，參謁出入，具有禮式，別作訓辭，諺譯教訓，閨門如官府。

<영조 37권, 10년(1734 갑인 / 청 옹정(雍正) 12년) 2월 5일(신해) 3번째 기사 / 사치하는 풍속을 금하도록 문자를 만들어 반포하게 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사치를 금하는 조항을 비국(備局)에서 경조(京兆)에 분부(分付)하여 언문(諺文)으로 번역하게 해서 방방곡곡(坊坊曲曲)에 효유(曉諭)하게 하라.”

《大典》禁奢侈條，自備局分付京兆，翻以諺譯，曉諭坊曲。”

‘傳譯’은 오늘날 한자사전에서 “원문(原文) 전부(全部)를 번역(翻譯)함 또는 그 번역(翻譯)”을 뜻하여 ‘全譯’의 이체자로 이해되나, 선조실록에는 일반적인 번역의 뜻으로 1회 나타난다.

<선조 54권, 27년(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8월 25일(경오) 3번째 기사 / 유 총병을 좇아 중국으로 들어간 조선인을 쇄환토록하다>

혹시 미혹된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 나오지 않거든 병부(兵部)에 이자(移咨)하여 모두 쇄환(刷還)하거나, 아니면 방문(榜文)을 많이 만들어 언문(諺文)으로도 번역해서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속에 들어가 타일러서 서로 이끌고 나오도록 하라.

小或執(速) [迷] 不悟，投入不來，則當移咨兵部，盡爲刷還，多作榜文，或以諺文傳譯，付可信人，入其中曉諭，使之傳相招引，但恐總兵不悅。

## 2.2. ‘翻’ 계열

### 2.2.1. ‘翻/翻’

조선왕조실록에서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翻/翻’의 용례는 총 58회 발견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譯’은 한글 창제 이후 성종 연간에 처음 등장하며, 선조실록에서 자주 관찰된다. 조선왕조의 시대별 용례를 살펴보면, ‘翻/翻’은 먼저 15세기 말 성종 때는 한어 불경의 언문 번역<sup>17)</sup>, 이문(吏文)의 한문

17) 관련 실례는 본 논문의 각주 9)에 해당하는 예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번역 등을 가리킨다.

<성종 9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1월 13일(경오) 3번째 기사 / 승문원 제도가 이문을 익히는 관리의 과제를 부과하는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1. 지금 간택(揀擇)된 인원(人員)은 북경(北京)에 갈 때마다 읽은 이문(吏文) 중에서 문의(文義)가 통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중국 조정에 아뢰는 계본(啓本), 방문(榜文)과 관부(官府)에서 서로 통용하는 문자(文字)와 체격(體格) 가운데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文書)를 널리 읽고 보아서 닳치는 대로 익히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구절(句節)마다 질정(質正)하여 익숙하게 통할 수 있도록 기(期)할 것이며,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하나하나 써서 아뢰고, 다음번에 이문을 고강(考講)할 때 위의 항목의 이문도 아울러 강론(講論)하고, 즉시 등사(謄寫)하여 습독(習讀)하게 하소서.

一。今揀擇人員，每赴京時，所讀吏文內文義未曉處，中朝奏啓本・榜文・官府相通文字體格，一應可倣文書廣行聞見，隨得隨習，其難解處，逐節質正，期於通慣，翻以漢文，一一開寫以啓，後次吏文考講時並講論，上項吏文，須卽謄寫，亦令習讀。

다음으로, 16세기(연산, 중종, 인종, 명종)에는 주로 한문의 언문 번역과 언문의 한문 번역을 모두 가리킨다.

<중종 81권, 31년(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5월 12일(병인) 4번째 기사 / 조종조에서 본받을 것들을 추려 교화를 위한 책 간행을 할 것을 명하다>

김근사가 상의 앞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수의한 내용을 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조종조에서 《삼강행실도》을 수찬하고 언문으로 번역해서 중외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쉽게 알고 쉽게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金謹思議啓于上前曰: “今觀收議之意，上教至當。在祖宗朝，修撰《三綱行實》，翻以諺文，頒諸中外，使人人易曉而易感也。

<인종 2권, 1년(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7월 4일(갑자) 6번째 기사 / 조정에 공포한 대행왕의 유교>

영의정 윤인경이, 중전이 언문으로 쓴 대행왕의 유교를 주서(注書) 안함

(安稔)에게 주어 승정원(承政院)에 보이니, 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이 둘러 앉아 펴서 읽고 누구나 다 통곡하였다. 곧 문자로써 번역하여 별지에 써서 조정(朝廷)에 공포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領議政尹仁鏡, 以中殿諺書大行王遺教, 付諸注書安稔, 示于承政院。承旨、史官等環坐披讀, 莫不痛哭。卽翻譯以文字<sup>18)</sup>, 書于別紙, 布諸朝廷, 其書曰:

선조 연간부터 17세기(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에는 ‘翻譯’이라는 한자 어휘가 주로 언문의 한문 번역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한문의 언문 번역 외에도 간혹 한문의 왜문 번역과 한문의 청어(淸語)로의 통역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다.

<<선조 184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2월 11일(을묘) 2번째기사 / 헌부가 신경희의 삭탈 관직과 문외 출송을 청하다>  
 그가 언문 편지를 찾아내어 한문으로 번역하고 장황하게 첩보하여 전계(轉啓)토록 한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무심하게 우연히 한 일이겠습니까. 觀其搜探諺書, 翻譯以文字, 張皇牒報, 使之轉啓, 此果無心偶爲之事乎?

<광해 127권, 10년(1618 무오 / 명 만력(萬曆) 46년) 윤4월 9일(정묘) 7번째기사 / 한찬남이 소명국·김중신·박희룡이 광영을 사주한 일로 아뢰다>  
 민심이 국청에 가져 온 서간을 뜯어 보았더니, 진서(眞書)로 된 네 장 가운데 한 장은 김중신의 서간이었고 석 장은 명국이 광영에게 보내 사주한 서간이었으며, 또 언서(諺書) 두 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서의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거듭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取來鞫廳, 開拆視之, 則眞書四張內, 一張則金仲信簡書, 三張則鳴國通環指嘯書也。又有諺書二張, 亦翻譯眞書<sup>19)</sup>重複指嘯者也。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21일(병오) 7번째기사 / 위관이 반적 김응관을 문초한 내용>  
 또 평양 성중의 인가 벽에 붙은 작은 쪽지에 팔도의 명칭을 차례로 쓰고 그 옆에는 각기 왜문(倭文)으로 번역을 하고, 그 끝에는 김첨정(金僉正)이라는 3자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너의 글씨다.

18) 이 때 ‘文字’는 ‘漢文’을 가리킨다.

19) ‘眞書’는 중국글, 즉 한문으로 우리글 즉 언문으로 된 ‘諺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且平壤城中人家塗壁小紙，列書八道，各其傍，翻以倭文，其末端，有金僉正三字，此是汝手書也。

<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월 27일(을사) 2번째 기사 / 진주사의 표문에 문제가 있으니 진향사의 표문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이른다>

이때 진주사 인평 대군 이요 등이 치계하기를 “한인(漢人)으로서 청국에 벼슬살이하는 자들이 갖가지로 헛점을 엿보아 기어코 우리 나라에 불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신이 가져간 표문 중에 있는 ‘하늘은 맑고 땅은 골라졌다.[乾淸坤夷]’는 말을 한인이 청어(淸語)로 번역하여 청주(淸主)에게 고하기를 ‘이는 하늘은 청(淸)이요 땅은 호(胡)라고 한 말로서 우리를 청이(淸夷)라고 하여 비난하는 뜻이 뚜렷하다.’ 하자,

時，陳奏使麟坪大君潛等馳啓曰：“漢人之仕於淸國者，萬端窺伺，必欲生變於我國，使臣齎去表文中，有乾淸坤夷之語，漢人翻以淸語告于淸主曰：‘此謂天則淸而地則胡也。

18세기 즉, 숙종, 영조, 정조 연간에는 ‘翻/翻’이 주로 한문의 청나라 글로의 번역을 뜻하였으며, 또한 한문의 언문 번역과 언문의 한문 번역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정조 6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8월 26일(계미) 2번째 기사 / 문안 정사 이은의 보고 편지를 받다>

신 등이 관소에 돌아오니, 통관들이 와서 말하기를, ‘표문을 청어(淸語)로 번역하여 계주(啓奏)한 뒤 바야흐로 황지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이어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臣等還歸館中。通官輩來言：‘表文翻淸啓奏之後，方始旨下。’仍示謄本。

<숙종 43권, 32년(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7월 20일(을해) 2번째 기사 / 죄인 박태춘·강이상에게 형벌을 시행하려 하니 승복하다>

아마도 강이상이 그 대의(大意)를 추려서 ‘세자를 모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거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문자로써 그가 말한 것을 번역하여 전하였을 것입니다.

未知履相，撮其大意，以謂謀害世子歟？傳之者，以文字翻其言語傳之歟？

<영조 16권, 4년(1728 무신 / 청 옹정(雍正) 6년) 3월 21일(신미) 5번째기사 / 교서를 지어 언서로 번역해 백성을 효유하다>  
 유신(儒臣) 정우량(鄭羽良)에게 명하여 교서(敎書)를 짓게하고 이를 언서(諺書)로 번역해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을 효유(曉諭)하였다.  
 ○命儒臣鄭羽良, 製敎書, 翻以諺書, 分送諸道, 曉諭民人。

마지막으로, 19세기(순조, 고종)에 ‘飜/翻’은 각기 한문의 청어 번역과 언문의 한문 번역을 의미하였다.

<순조 1권, 즉위년(1800 경신 / 청 가경(嘉慶) 5년) 10월 26일(을해) 4번째기사 / 고부 겸 청사 청승습 정사 구민화 등이 연경에서의 출발을 보고하다>  
 표문(表文)은 같은 날 예부에서 내각(內閣)으로 보내어 청(淸)나라 말로 번역하여 입주(入奏)하였는데 ‘알았다’고 한 성지(聖旨)를 받았습니다.  
 表文同日自禮部送內閣, 使之翻淸入奏, 奉旨知道。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 / 청 동치(同治) 12년) 5월 16일(계사) 1번째기사 / 강론 후 왕조의 사실들을 계속 편찬하게 하다>  
 방금 하교를 받들었으니 삼가 상의하여 언문(諺文)을 진서(眞書)로 번역하겠습니다.”  
 而方奉下教, 謹當商議, 而以諺翻眞矣。”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자어휘 ‘飜/翻’은 ‘譯’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한문과 언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어간 교섭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飜/翻’은 한문으로의 번역을, ‘譯’은 언문으로의 번역을 가리킨다는 기존 주장<sup>20)</sup>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 2.2.2. ‘飜/翻’이 이끄는 복합어휘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飜/翻’을 앞에 두고 구성된 복합어휘에는 ‘飜寫’,

20) 김슬옹은 조선왕조실록 내의 ‘諺文’에 관한 연구에서 “문자 측면이 강한 한문으로 옮기는 것은 ‘飜’을 사용하고, 구어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격이 강한 언문으로 옮기는 것은 ‘譯’을 썼다”(2005: 33)고 주장한 바 있다.

‘翻譯錄’, ‘翻譯出’, ‘翻譯校’, ‘翻譯解’, ‘翻譯鮮’, ‘翻譯書’, ‘翻譯謄’, ‘翻譯讀’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된 그 각각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을 뜻하는 복합어 ‘翻譯寫’는 성종 및 명종 실록에 세차례 등장한다.

<성종 105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6월 5일(경인) 4번째 기사 / 중궁을 폐출한 연유를 대신들에게 알리다>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청컨대 한자(漢字)로 번역해서 사책(史策)에 쓰게 하소서.” 하니, 채수 및 이창신(李昌臣)·정성근(鄭誠謹)에게 명하여, 그 글을 번역하게 하였다.

蔡壽啓曰: “請以漢字翻譯寫, 書之史策。” 命令蔡壽及李昌臣、鄭誠謹, 翻其文。

‘번역하여 쓰기’를 의미하는 ‘翻譯錄’은 성종실록에서 한차례 발견된다.

<성종 206권,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8월 5일(임신) 2번째 기사 / 형조 정랑 유양춘이 회우부를 올리다>

신이 삼가 보건대, 지난 4월 18일의 의정부(議政府)에 내린 교지(教旨)와 5월 13일 본부(本府)에서 번역하여 쓴 어비(御批)는 모두 지극한 충심(衷心)으로 간절하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臣伏觀前四月十八日, 議政府宣下教旨及五月十三日, 本府翻譯錄御批, 皆出於至衷懇惻也。

‘翻譯出’은 ‘번역해 가기’ ‘번역해 내기’ 등의 의미로 선조, 숙종, 고종 실록에 총 5회 나타난다.

<선조 58권, 27년(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12월 20일(계해) 1번째 기사 / 비변사가, 이시발이 적진에서 정탐할 조목을 갖추어 줄 일로써 아뢰다>

또 이 모든 조목은 이시발만 몰래 기억해 가게 하고 죽 적어서 싸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며, 혹 언서(諺書)로 번역해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니, 且此諸條, 只令時發, 默識而去, 不必列書齋往, 或以諺書翻譯出以往, 無妨。”

<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9월 8일(기사) 2번째 기사 / 원상 허적이 이번 사행에는 중사가 호행하는 것을 폐하도록 건의하다>

원상(院相)이 청대(淸對)하여 아뢰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행록(行錄)을王大妃殿에서 언서(諺書)로 내리셨습니다. 대제학(大提學) 김만기(金萬基)와 우승지(右承旨) 김석주(金錫胄)는 모두 문인(文人)이니, 신 등이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여 번역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院相請對啓曰: “大行大王行錄, 自王大妃殿以諺書書下矣。 大提學金萬基、右承旨金錫胄皆文人也。 臣等與此二人, 同議翻出何如?”

‘翻校’는 ‘번역과 교정’의 뜻으로 선조실록에 1회 출현한다.

<선조 162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5월 13일(무진) 5번째 기사 / 교서관에서 유교 경전의 번역에 대해 아뢰다>

전란이 일어나기 전에 삼경(三經)을 번교(翻校)해 놓고 미처 간행하지 못했다가 병화에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在平時, 三經已爲翻校, 未及刊行, 失於兵火。

‘번역하여 풀기’, ‘번역하여 알게 함’ 등으로 이해되는 ‘翻解’는 선조, 광해, 정조 실록에 총 10회 등장한다.

<광해 139권, 11년(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4월 19일(임신) 1번째 기사 / 왕이 진주문에 ‘후금 황제’로 명칭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고 다시 생각해 보니, 굳이 이처럼 번역하여 풀 것이 아니라 범연하게 알아볼 수 없다는 뜻으로 삭제하고 고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今承聖教, 更爲商量, 則不必如是翻解, 泛然以不可解見之意, 刪改宜當。”

<정조 41권, 18년(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년) 9월 11일(을미) 3번째 기사 / 표류한 유구인에 관해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치계하다>

그리고 만약 미진한 것이 있으면 유구에서 조공을 바치는 해에 다시 들여 보내어 그 말의 음운을 번역하여 알게 할 일을 도제거로 하여금 알게 하



라.”하고,

如有未盡條件, 琉球朝貢之年, 更爲入送, 翻解音韻事, 令都提學知悉。”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翻鮮’은 선조실록에서 한차례 발견된다.

<선조 183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1월 26일(신축) 4번째기사 / 위관 기자현이 윤세침 사건 관련자 처리 문제를 여쭙다>

그리고 그 때 향소(鄕所)와 색리(色吏)를 보내 수색하여 오게 하였다면 마땅히 고을 사람들과 아전이 보는 곳에서 함께 공개하여 살펴보고 장수를 세어 봉함하여 올려보냈어야 하며 비록 번역을 하더라도 또한 고을 사람들과 아전이 보는 곳에서 번역하여야 했을 것인데, 최동립을 다시 추고한 초사에 ‘각항의 서간을 번역하는 일은 군수가 열어 본 뒤에 내가 비로소 들어가 보았다.’고 하였고,

且其時, 遣鄕所及色吏, 搜探而來, 則當於郡人吏所見處, 公共開見, 計數監封上, 雖使翻鮮, 又當於郡人吏所見處翻解, 而崔東立更推招辭內: ‘各項書簡, 郡守開見後, 渠始爲入現。’

‘翻書’는 ‘번역한 글’, ‘번역서’, ‘번역하여 쓰기’ 등의 뜻으로 인조, 경종, 영조 실록에 총 7회 나타난다.

<인조 16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6월 17일(임자) 1번째기사 / 정충신이 번역한 글을 사잇길로 보내 의주에 전하려한다고 치계하다>

정충신이 치계하였다. “전일 번역한 글을 가지고 갔던 네 사람이 차련(車輦) 지방에 이르러 모병(毛兵)에게 살해되고 한 사람이 탈출해 왔기 때문에 의주에 머물러 있는 호(胡)에게 글을 전하지 못하자 두 호차(胡差)가 크게 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왕계(王弟)가 돌아갈 때 힘을 다하여 호송하였는데, 본국의 인민이 모병과 섞여 살면서 유독 우리의 번역한 글을 전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壬子/鄭忠信馳啓曰: “前日翻書持去四人, 到車輦地, 爲毛兵所殺, 一人脫身而來, 未能傳書於義州留胡處。 兩差大怒曰: ‘我國則王弟歸時, 竭力護來。 本國人民, 與毛兵雜處, 獨不能傳我翻書乎?’

<인조 27권, 10년(1632 임신 / 명 승정(崇禎) 5년) 9월 27일(임술) 1번째

기사 / 추신사 박난영이 의주에서 올린 계와 평안 감사 민성휘의 계>  
두 나라가 서로 좋아하여 일이 한 집안과 같으니 무릇 문자와 언어를 서로 통하지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당신 나라에서 널리 쓰고 있는 번역서(翻譯書)를 장차 역관(譯官)에게 학습시키고 싶으니 그 본서(本書)를 얻고자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문제이다.

兩國相好，事同一家。凡文字、言語，不可不相通，故爾國行用翻譯書，將欲傳習於譯官，願得其本書，此其三也。

<영조 12권, 3년(1727 정미 / 청 옹정(雍正) 5년) 8월 20일(계묘) 13번째 기사 / 소대에서 변방의 봉수의 허술함·연대의 물건 설명을 명확히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명기(明紀)》를 강독(講讀)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오명신(吳命新)이 변지(邊地)의 봉수(烽燧)가 허술하다는 것을 아뢰고, 병조(兵曹)를 시켜 절목(節目)을 만들고 연대(煙臺)의 물건을 나열하여 적어 조목마다 주(註)를 달아 쓸 곳을 명백히 보여 팔로(八路)에 반포하고 또 언문(彦文)으로 번역하여 써서 모든 연대의 벽에 붙여서 강습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行召對，講《明紀》。侍講官吳命新，陳邊地烽燧之虛疎，請令兵曹，作為節目，列錄烟臺物件，逐條懸註，明示用處，頒布八路，又以諺文翻譯書，付諸烟臺壁上，以為講習之地，上從之。

한편, ‘翻譯’은 ‘翻譯’의 복합어휘 가운데 그 빈도가 가장 높아 ‘번역하고 등서하기’, ‘번역하여 쓰기’, ‘번역해 베끼기’ 등의 의미로 숙종, 영조, 정조, 순조, 고종 실록에 총 15회 발견된다.

<숙종 34권, 26년(1700 경진 / 청 강희(康熙) 39년) 9월 9일(무술) 3번째 기사 / 과옥 죄인 김전·유세기의 공초>

의금부(義禁府)에서 김전(金戩)이 그의 집에 밀통(密通)한 언서(諺書) 3장을 얻어서 번역하고 등서(謄書)하여 아뢰었다. 이어 이것으로 문목(問目)으로 삼았다.

○禁府獲金戩諺書三張之密通其家者，翻譯以啓，仍以此發爲問目。

<영조 78권, 28년(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12월 17일(계묘) 11번째 기사 / 대왕 대비전과 하교의 부당함에 대해 논의하다>

그리고 잠시 전의 비답 가운데 말을 고쳐 내려주라고 대비전에 청하였는데, 승전색이 잘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시 들어갔다 조금 후에 다시 나왔는데, 언서의 비답을 번역해 써서 내리자 곧 궁으로 돌아갔다.  
以俄者批答中辭語請其改下於大妃殿, 以承傳色之不能詳悉, 卽入少頃復出, 翻譯諺書批答以下, 仍還內。

<고종 6권, 6년(1869 기사 / 청 동치(同治) 8년) 11월 23일(경인) 1번째 기사 / 북관의 변경 지역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도록 하다>  
이 하교의 내용을 한문(漢文)과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베껴서 방곡(坊曲)에 게시하여 붙임으로써 몰랐다고 한탄하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하였다.  
將此辭教, 真諺翻譯, 揭付坊曲, 俾無一民不知之歎。”

끝으로, ‘번역하여 읽기’라는 뜻의 ‘翻譯’을 숙종실록에서 한차례 보게된다.

<숙종 42권, 31년(1705 을유 / 청 강희(康熙) 44년) 9월 12일(계유) 1번째 기사 / 지사 조태체가 태영의 옥사를 담당할 수 없다 아뢰다>  
살펴보건대, 태영이 당초에 누누이 공초한 것이 수천 마디인데, 성문(成文)을 번역하여 읽으면 다 조리가 있으니 문사(文士)가 구성한 것인 듯하다.  
按泰英當初供辭, 縷縷數千言, 翻譯成文, 皆有條理, 有若文士構成者然。

### 2.2.3. ‘翻譯’이 따르는 복합어휘

번역을 뜻하는 한자어휘 ‘翻譯’을 뒤에 두고 구성된 복합어휘에는 ‘諺翻譯’이 유일하며, 그 뜻은 ‘언문 또는 언어(諺語)로 번역하기’와 ‘언문 번역서’이다.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실록에서 총 8회 찾아낸 그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5월 26일(신축) 1번째 기사 / 사간원이 속요를 어제라고 한 동래 부사 이복의 파직을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다>  
그 뒤에 사간원이 또, “이복은 전후에 계문(啓聞)한 사어(辭語)가 난잡하므로 사람들이 허다히 전해들으며 비웃었는데, 이번에는 향간(巷間)의 속

된 노래를 망령되어 어제(御製)라 하며 언어(諺語)로 번역하여 올리고, 제발(題跋)에도 또한 외설(猥褻)한 말이 많았습니다.

後，諫院又以馥前後啓聞，辭語胡亂，人多傳笑。今以閭巷俚謠，妄謂御製，諺翻投進，題跋亦多猥褻。

<정조 33권,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11월 3일(갑술) 2번째 기사 / 평택 현감 이승훈과 양근 사람 권일신을 잡아다 문초하다>

또 이번에 신에게 답한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예산의 촌백성들이 갖고 있는 언문 번역서나 베낀 책을 곧 형리(刑吏)의 상자 속에 맡겨 두었는데, 그 중에 《성교전선(聖教淺說)》과 《만물진원(萬物眞源)》 두 책은 모두 증거가 있다.」 하였습니다.

又於今番答臣書中有曰：「禮山村氓輩，諺翻或謄書者，卽付刑吏橫中，而其中《聖教淺說》、《萬物眞源》二冊，皆有證據」云。

<순조 11권, 8년(1808 무진 / 청 가경(嘉慶) 13년) 12월 1일(임진) 2번째 기사 / 자궁에게 존호를 올리고 경사를 치루는 일을 준비하라 하교하다>

의주(儀註)는 오늘 안에 초를 잡아 들이되, 언문(諺文)으로 번역한 의주 1 통을 또한 써서 들어올 것이며, 활기(笏記) 또한 있어야 마땅하다.”하였다. 儀註，今日內出草以入，諺翻儀註一通，亦爲書入，而笏記亦當有之矣。”

## 2.3. 기타 계열

### 2.3.1. ‘諺’ 계열

필자는 조선시대 번역 개념에 대한 어의론적 연구를 시도한 논문에서<sup>21)</sup>, 한글창제 이후 ‘翻譯/翻譯’에 대한 경쟁 용어로 ‘諺解’가 등장하여, 종종 연간부터 ‘언문으로의 번역’(번역서, 번역행위, 번역문)을 뜻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諺解’의 파생어휘들로 ‘諺釋’, ‘諺騰’, ‘反諺’ 등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그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諺釋’은 ‘諺書’, ‘諺文’, ‘언문으로 해석’, ‘언해로 풀기’ 등의 의미로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영조, 정조 실록에 총 13회 나타난다.

21) 이영훈(2011:144-145) 참고.

<仁祖 16卷, 5年(1627 丁卯 / 명 천계(天啓) 7年) 7月 17日(辛巳) 4번째 기사 / 영돈녕부사 서평부원군 한준겸의 줄기>

일찍이 북방의 관찰사가 되어서는 먼저 《가례》와 《소학》을 간행하여 언서(諺書)로 번역하였고, 또 《의례》를 모방하여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사례(鄉射禮)를 제정하였으며, 외직으로 나가거나 내직으로 들어오거나 근면하였고 사방에 힘을 다했으므로 크게 사민(士民)들의 마음을 얻었다. 嘗按節北方, 先刊《家禮》、《小學》, 翻以諺釋, 又倣《儀禮》, 作鄉飲酒、鄉射之禮。出入勤勞, 宣力四方, 大得士民之心。

<孝宗 7卷, 2年(1651 辛卯 / 청 순치(順治) 8年) 9月 16日(庚寅) 1번째 기사 / 태묘 악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묘실에 악장을 설치할 것을 논의하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직책은 음악을 관장하는 것인데, 음률(音律)에 전연 어두우므로 못 음악을 시험할 때 곡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만 종묘 악장 가사책(宗廟樂章歌詞冊)을 가져다 보았더니, 언문으로 해석한 인본(印本)에 그릇된 음(音)이 많았습니다.

伏以, 臣職是掌樂, 而全昧音律。 試閱衆樂之際, 謾不知調曲之爲如何, 而取見宗廟樂章歌詞冊, 諺釋印本, 多有誤音。

<顯宗 21卷, 14年(1673 癸丑 / 청 강희(康熙) 12年) 1月 21日(壬辰) 1번째 기사 / 인정문에서 조참을 받다>

김휘가 또 아뢰기를, “신이 바닷가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상께서 애 통한 교서를 내리시어, 신이 언문으로 번역해서 여러 백성들을 모아 놓고 성상의 덕의를 선포하기를 ‘교서에, 각종의 군병들 중에 도망하거나 죽은 자들에 대하여 3년을 한계로 대신을 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은 알고 있으라.’ 하자,

徽又曰: “臣待罪海島時, 上下哀痛之教, 臣釀以諺釋, 聚老少民丁, 宣布德意曰, ‘教書中, 有諸色軍兵逃故, 限三年勿代定之語, 爾等知悉,’

<顯宗 26卷, 14年(1673 癸丑 / 청 강희(康熙) 12年) 2月 29日(己巳) 1번째 기사 / 시강원이 《대학》 주각을 언해로 풀이함을 아뢰다>

시강원이 아뢰었다. “본원이 입달(入達)한 바 《대학(大學)》 주각(註脚)을 언해로 풀이야 되는지의 여부를 사부(師傅)에게 물어보라고 왕세자가 하령(下令)하였기에,

○己巳/侍講院啓曰: “以本院入達《大學》註脚諺釋與否, 問于師傅事,

王世子下令矣。

‘언문으로 베끼기’라는 뜻의 ‘諺騰’은 정조실록에서 총 3회 출현한다.

<正祖 26卷, 12年(1788 戊申 / 청 건륭(乾隆) 53年) 8月 2日(辛卯) 3번째기사 / 정언 이경명이 서학을 엄히 가리기를 청하다>  
근년에 성상의 전교에 분명히 계시(揭示)하였고 처분이 엄정하셨으나, 시일이 조금 오래되자 그 단서가 점점 상하여 서울에서부터 먼 시골에 이르기까지 돌러가며 서로 속이고 유혹하여 어리석은 농부와 무지한 촌부(村夫)까지도 그 책을 언문으로 베껴 신명(神明)처럼 받들면서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된다면 요망한 학설로 인한 중당의 화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頃年聖教昭揭，處分嚴正，而日月稍久，其端漸熾，自都下以至遐鄉，轉相誑誘，雖至愚田氓，沒知村夫，諺騰其書，奉如神明，雖死靡悔。

끝으로 ‘언문으로 번역하기’라는 의미로 ‘反諺’이 정조실록에 1회 등장한다.

<정조 14권,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1월 3일(병신) 1번째기사 / 호서 지방에 환곡, 진휼, 조세 감면에 대한 유시를 내리다>  
이어 교서관에 명하여 언문으로 번역해서 간행한 다음, 내각(內閣)에서 이를 도내의 감영·병영·수영과 수령·찰방들에게 반포하라고 하였다.  
仍命芸館，反諺入刊，自內閣頒給道內監、兵、水營及守令、察訪。

### 2.3.2. ‘化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외에도 불교 용어인 ‘化作’<sup>22)</sup>이 번역의 의미로 선조실록에 1회 발견된다.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선조 6권, 5년(1572 임신 / 명 융경(隆慶) 6년) 9월 11일(갑오) 1번째기사 / 중국 사신이 올 때 종계 변무하는 일을 논의하다>

22) 국어사전에 따르면, ‘化作’은 “불보살이神通력으로 가지가지의 모습이나 사물을 만들어 냄”을 뜻한다.

영상이 예조 판서 박영준에게 단자를 기초(起草)하게 하고 좌상이 조금 다듬어서 김계에게 주어 통사 홍순언(洪淳彦) 등을 시켜서 한어(漢語)로 번역하여 단자를 만들어 예조에 주어 아뢰도록 하였다.  
 領相令禮判朴永俊起草, 左相小加潤色, 以付金啓, 使與通事洪淳彦等, 化作漢語, 成單(字) [子], 付禮曹以啓。

### 3. 결론

한국어에서 ‘번역’을 뜻하는 용어들은 ‘譯’, ‘翻譯’, ‘翻譯’, ‘諺解’의 순서로 출현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한문문헌의 한글번역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 온 ‘國譯’이라는 표현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순암집(醇庵集)과 같은 조선조 문집에서 간혹 발견된다.

醇庵集卷之九 - 雜著 - 記鄭烈士事 a\_242\_541d  
 [순암집(醇庵集) 卷之九 / 문체-雜著 / 기사명-記鄭烈士事 / 저-편-필자-오재순(吳載純) 간행연도-1808년]  
 鄭先甲烈士也。中國琅琊縣人。其先有仕大明。至吏部尚書太學士名文謙者。大明亡。烈士以布衣不屈而逃。自山東行八千餘里。至我北邊。授人文字以資生。朝廷聞之。致之京師。給奴婢宅里。俾授國譯華音。時年尚壯。竟坎軻而死。君子悲之。其事尠傳後。無知有烈士者。烈士有詩數十篇。皆東來後作。其孫某持以示余。其詩悲憤不平。涕下不忍讀。某亦以韎韐。業供賤職。貌甚峭而眸燁然有彩。豈以其烈士之種也歟。余有感於烈士之志而列之。

그러나 ‘國譯’의 본격적인 사용은 갑오개혁 이후 ‘國文’이라는 용어의 발전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譯’, ‘翻譯’, ‘諺’를 바탕으로 한 복합어들은 그 기저 어휘 보다 뒤늦게 형성되어 한국어 번역 개념의 다양한 외양과 내용을 표현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한국어의 번역 개념은 ‘범어 불경의 한어 번역’이라는 중국에서 유입된 어의(語義)에서 출발하여, 이두와 같은 차자문자의 개발에 힘입어 한어를 비롯한 여진, 왜 문자의 이두 번역으로 이어졌다. 한글 창제 및 반포 이후에는 한문의

한글 번역, 한문과 한글을 대상으로 한 주변국가(왜, 여진, 몽고, 청 등) 언어와의 교섭 행위로 확대되었고, 고종 연간부터 ‘서구 언어의 번역’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19세기 후반 해강 최한기의 문집 人政 卷二十五 用人門[六] 文字意思(1860)에는 ‘翻譯’이 비유적 의미로 해석되는 예가 발견된다.

文字。乃言語之翻譯。隨俗變飾。漸遠於事物之實狀。意思乃億料之排布。各出所見。多違於事物氣化。

그런데 문자란 말을 글로 펼쳐 놓은 것이라, 습속에 따라 변식(變飾)되어 점차 사물의 실상에서 멀어지고, 의사는 생각이 발로(發露)되는 것이라 각각 자기 소견을 내므로 사물의 기화(氣化)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한국어 번역 개념의 특징은 우선 서구 언어의 일반적 번역 개념과 달리 일찌감치 BA번역뿐만 아니라 AB번역까지도 아우렀다는 점이며, 일본이 에도시대(1603-1867)에 이미 ‘서구어의 번역’이라는 어의를 받아들인 것에 비해 고종 연간에야 비로서 서구어의 번역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또한,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 등의 언어들에 비해 한국어에 번역 개념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번역 개념을 나타내는 모든 어휘와 그 사용처 및 의미들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기본형	변이형	사용처와 의미
譯	譯解, 譯說, 譯審, 譯書, 譯成, 反譯, 象譯, 重譯, 諺譯, 傳譯	몽고어문⇒한문, 한문⇒이두문, 한문⇒여진어문, 한문⇒왜어문, 한어문⇒언문, 야인어문⇒한문, 범어문⇒한문, 언문⇒한문, 한문⇒여진어문, 고전한문⇒한어문, 한문⇒언문, 한어문⇒야인어문, 왜어문⇒한문, 청어문⇒한문, 만주어문⇒한문, 일본어문⇒한문, 독일어문⇒한문, 프랑스어문⇒한문, 한문⇒일본어문, 번역 일반, 번역하고 풀이하다, 번역하여 말하다, 번역하여 살펴보다, 번역된 책, 번역 글쓰기, 서구문헌의 번역, 번역하고 해석하기, 되풀이하여 번역하기, 통역, 여러 번 번역하기, 한글로 번역하기, 한글텍스트, 완역
飜/翻	飜寫, 飜錄, 飜出, 飜校, 飜解, 飜鮮, 飜書, 飜謄, 飜讀, 諺飜	한어문⇒언문, 이문⇒한문, 한문⇒언문, 언문⇒한문, 한문⇒왜어문, 한문⇒청어문, 한문의 청어통역, 번역하여 쓰기, 번역해 가기, 번역해 내기, 번역과 교정, 번역하여 풀기, 번역하여 알게 함, 번역한 글, 번역서, 번역하고 등서하기, 번역해 베끼기, 번역하여 읽기, 언문으로 번역하기, 언문 번역서
翻譯	翻譯 / 翻譯 / 繙譯 / 繙譯	범어문⇒한어문, 한어문⇒이두문, 한어문⇒범어문, 왜어문⇒한문, 한문⇒언문, 한어문⇒언문, 언문⇒한문, 야인어문⇒한문, 한문⇒야인어문, 이문⇒한문, 한문⇒이문, 왜인어와 야인어의 조선어 통역
諺	諺解, 諺釋, 諺騰, 反諺	언문으로 번역하기, 언문 번역서, 언문 번역문, 언문으로 해석, 언해로 풀기, 언문으로 베끼기

\* 化作

### 참고문헌

김슬옹 (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김정우 (2005a)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체」, 『우리말연구』 16, 139-161.  
 \_\_\_\_\_ (2005b) 「한국 번역사의 기술과 자료」, 『통번역교육연구』 3(1), 5-20.  
 \_\_\_\_\_ (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네이버 국어사전 : <http://krdic.naver.com/>

- 네이버 한자사전 : <http://hanja.naver.com/>
- 박소동 (2010) 「한국번역사 전개와 번역양상 개관」,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 연구소 / 한국번역비평학회 2010년 9월 학술발표회 자료집』, 23-47.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_\_\_\_\_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 \_\_\_\_\_ (2004)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 번역」, 『번역학연구』 5(2), 69-91.
- 이영훈 (2011) 「한국에서의 번역 개념의 역사 :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翻譯」, 『통번역학연구』 15(1), 129-151.
- 정광 (2010) 「한글의 발명과 번역(翻譯) 및 언해(諺解)」,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 연구소 / 한국번역비평학회 2010년 9월 학술발표회 자료집』, 1-22.
-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최경옥 (2003) 『한국개화기의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연구』, 서울: J&C.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 Chan, Leo Tak-hung (ed.) (2004) *Twentieth-Century Chinese Translation Theory. Modes, issues and debat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heung, Martha (2005) ‘To translate’ means ‘to exchang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earliest Chinese attempts to define translation (‘fanyi’), *Target* 17(1): 27-48.
- \_\_\_\_\_ (2011) ‘Reconceptualizing Translation - Some Chinese Endeavours’, *Meta* 56(1): 1-19.
- Halverson, Susanne (1999a) ‘Conceptual Work and the *Translation* Concept’, *Target* 11(1): 1-31.
- \_\_\_\_\_ (1999b) ‘Image Schemas, Metaphoric Processes, and the *Translate* Concept’, *Metaphor and Symbol* 14(3): 199-219.
- Hung, Eva & Wakabayashi, Judy (eds.) (2005) *Asian Translation Traditions*, Manchester: St. Jerome.
- Levy, Indra (ed.) (2011) *Translation in Modern Jap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uo, Xuanmin & He, Yuanjian (eds.) (2009) *Translating China*, Bristol/

Buffalo/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Pokorn, Nike K. (2005) *Challenging the Traditional Axiom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Tymoczko, Maria (2006) 'Reconceptualizing Translation Theory : Integrating Non-Western Thought about Translation', Hermans Th. (ed.), *Translating Othe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vol. 1, 13-32.

\_\_\_\_\_(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Wakabayashi, Judy (2005) 'Translation in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Shared Roots, Divergent Paths?', Hung E., & Wakabayashi J. (eds.) (2005), 17-65.

\_\_\_\_\_(2009) 'An etymological exploration of 'translation' in Japan', Wakabayashi J., & Kothari R. (eds.), *Decentering translation studies : India and beyond*,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5-194.

\_\_\_\_\_(2011) 'Secular translation: Asian perspectives', Malmkjær K., & Windle K.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3-36.

[Abstract]

**Onomasiologic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 Korean: Exploration in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2)**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different terms corresponding to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to refer to the activities now called 'beonyeok' in Korean. For this purpose we have examined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in using the keywords as 'Beonyeok' and 'Eonhae'. During the Joseon Dynasty two terms Yeok and Beon as well as their compounds were used with different meanings of the translation concept in referring a variety of interlingual negotiations around Hanmun and Eonmun texts. This study with its onomasiological method will complete our previous work based on the semasiological approach to reconstitute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 Korea. In conclusion, we suggest three particularities of Korean translation concept: co-reference to BA as to AB translations, late acceptance of the meaning of translation from western languages, multiplicity of the terms denoting the concept of translation.

▶ Key Words: translation concept, onomasiological approach,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Yeok, Beon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사회학, 번역학사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